

KMI 국제물류위클리

2015년 11월 18일 · 제332호
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총괄 이성우 실장, 감수 길광수 선임연구위원

Contents

| 물류정책 · 사업동향 |

1. 세계 해운 · 항만 산업, 사물인터넷 도입 추세
2. 중국 다롄항만그룹, 자루비노 이어 러 나호트카항 개발 투자
3. 파나마 항만 프로젝트에 입찰자들의 관심 집중
4. Adandi그룹, Kattupalli 항만 인수

| 물류시장동향 |

1. Maersk사, 인도네시아 정부와 전략적 제휴 의향서 체결
2. 아스트라한-투르크메니스탄 항로 새로운 카페리 취항

| 공지사항 |

1. 북방물류시장 활성화를 위한 나진항 활용 방안 세미나 개최
2. 한중 FTA 연계 가치사슬 창출방안 세미나 개최
3. 중소 · 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





물류정책 · 사업동향

세계 해운 · 항만 산업, 사물인터넷 도입 추세

- 사물인터넷(Internet of Things)의 개념이 전세계에 걸쳐 일반화 되면서 진정한 글로벌 연결 시대가 눈 앞에 펼쳐지기 시작함
 - 2020년까지 약 260억개의 다양한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상호 정보를 교류하게 될 것임
 - Marine Propulsion and Auxiliary Machinery의 편집자인 Paul Fanning씨는 이러한 정보 혁명의 기반은 이미 일상에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밝힘
- 실제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교환을 통한 사물 간의 상호 연결 및 이에 대한 활용은 널리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음
 - 예전부터 활용되어오던 원격 상황모니터링은 사물간 정보교환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더욱 복잡하고 정밀해지고 있음
 - 산업계뿐만 아니라 스마트 폰, 스마트 TV, 스마트 도어락 등 일상 사물, 사람, 서비스 등이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있어 생활의 편의와 정보의 상호교환을 촉진하고 있음
- 이처럼 사물인터넷이 점차 일반화되어감에 따라 해운 · 항만 산업에 대한 적용도 점차 확산되고 있음
 - 사물인터넷의 발달로 선박과 항만 터미널운영시스템과의 단순 정보교환뿐 아니라 선박과 하역장비와의 직접적인 통신 및 정보통합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
 - 이러한 정보의 통합은 장비간 자동화 및 상호 조율을 가능케 하여 항만하역을 보다 빠르고 안정적이며 환경 친화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줌
 - 세계적인 항만장비 자동제어 업체인 ABB는 최근 선박과 육상하역시스템을 연결하는 통합 운영개념을 도입, 실제 현장에서 완전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해양 R&D 연구실 운영을 시작했음
 - ABB의 Software and Automation Operations부문 부사장인 Mikko Lepistö씨는 정보의 디지털화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선주가 전체 선단에 대한 원격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밝힘
 - 선단 정보가 원격 자동시스템에 의해 수집되면, 해당 데이터는 가장 적절하게 사용되어 비용절약 및 환경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임
- 사물인터넷이 해운 · 항만 산업에 완전히 도입되기에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이나, 결국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물인터넷에 투자할 것임



- 해운은 전통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느리고, 이러한 혁신적 기술이 적용되기까지는 넘어야할 많은 기술적, 법적, 그리고 제도적 장벽이 있음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물인터넷이 점차 일반화 되어가고 그 기술의 혜택이 명확해지게 되면 해운·항만 기업들은 사물인터넷 도입에 대한 압력을 견디기 힘들 것임
- 사물, 서비스, 사람과 네트워크의 연결은 해운·항만산업, 특히 서비스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임

자료 : www.porttechnology.org, 2015.11.15.

전형모 전문연구원
051-797-4683, hmjeon@kmi.re.kr



중국 다롄항만그룹, 자루비노 이어 러 나호트카항 개발 투자

- 중국의 국영 다롄항만그룹은 최근 러시아 극동해운(FESCO)과 전략적 협력 협정을 맺고 러시아 극동지역 나호트카항을 개발하기로 합의함
 - 로이즈 리스트가 중국 국영라디오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, 다롄항만그룹은 FESCO 소유 나호트카항의 야적장, 냉동 창고 및 기타 터미널 시설 등의 재건축 등을 포함해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함
 - 나호트카항은 러시아 극동화물의 65% 이상을 처리하는 연해주 및 하바롭스크 지역 항만의 하나로, 주로 금속, 곡물, 목재, 셀룰로스 등을 취급하며 석탄 처리량도 상당함
 - 부산항만공사는 2007년 나호트카 어항을 컨테이너 터미널로 전환하는 사업에 투자했다 2010년 금융위기 과정에서 러시아측 파트너사의 파산으로 투자에 실패한 바 있음



나호트카항 전경(어항)

자료 : city.samondeo.com



자료 : www.morproekt.ru

- 중국측은 장기적으로 나호트카항을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컨테이너 환적 허브로 건설할 계획임
 - 다롄항만그룹과 FESCO는 투자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측 항만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, 다롄과 나호트카항 사이에 신규 컨테이너 서비스 노선을 개설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
 -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 전체 화물처리 능력을 현재의 47만 톤 규모에서 3백만 톤 규모로 확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- 한편 로이즈 리스트측은 중국이 자국 내 항만의 이윤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공격적인 해외 투자를 벌이는 이유에 대해 글로벌 항만물류 시장에서 중국의 존재감을 확대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음



- 중국은 이미 두만강 유역에서의 “차항출해”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의 나진항 외에 중러 합작 및 중국의 지분참여 방식으로 러시아 자루비노항에 대한 25년 이용 협정을 맺고 현재 자루비노항을 개발하고 있음
- 다렌항만그룹은 건화물 물동량이 크게 감소해 2015년 최초 9개월간 약 5천8백만 달러의 순이익 감소를 기록했음

자료 : www.loydslist.com, 2015.11.12.

박성준 전문연구원
051-797-4774, sjpark@kmi.re.kr



파나마 항만 프로젝트에 입찰자들의 관심 집중

- 파나마 코로살(Corozal) 항만 신규 건설 입찰에 11개의 글로벌 항만 개발 및 운영업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
 - 이 프로젝트는 파나마운하관리청(ACP; Panama Canal Authority)이 승인한 신규 환적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사업으로, 파나마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물류 허브 국가로 발돋움할 계획임
- 이번 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업체는 다음과 같음
 - Terminal Investment Limited SA(네덜란드), EUROGATE Container Terminal Wilhelmshaven(독일), Carrix, Inc.(operating as SSA Marine) and affiliates (미국), Hyundai Engineering & Construction Co.(한국), APM Terminals (네덜란드), Ports America(미국), CMA-CGM Group(프랑스), Evergreen International Corp.(대만), China Shipping Ports Development Co. Ltd. and China Harbour Engineering Co. Ltd.(중국), Hamburger Hafen und Logistik AG(독일), and Panama Ports Company(중국)
-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에 297 에이크에 달하는 부지가 사용될 예정임
 - 이 부지는 파나마 운하의 태평양 동쪽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, 태평양 연안과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다른 항만들 사이를 연결하는 철도와도 근접해 있어 입지상의 장점을 지니고 있음
- 이 터미널은 ACP가 소유한 120 헥타르 부지 내에 2단계로 나누어 건설될 예정이며, 총 5개 선석 외 컨테이너 장치장 및 창고시설을 건설할 계획임
 - 1단계는 3선석, 1,350 미터 길이로 건설될 예정이며, 300만 TEU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 - 또한, 포스트-파나마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항로수심은 6.3미터, 안벽수심은 18미터까지 확보할 계획임
- 현재 파나마 운하의 태평양 측 처리 능력은 500만 TEU로 추정되고 있으나, 향후 신규 터미널 완공 시 600만 TEU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 - 2020년에는 800만 TEU까지 확충될 전망임

자료 : www.americanshipper.com, 2015.11.12.

신수용 전문연구원
051-797-4780, shinsy@kmi.re.kr



Adandi그룹, Kattupalli 항만 인수

- 최근 인도 최대 항만 운영사인 ‘아단디 항만 및 특별경제구역(APSEZ; Adandi Ports and Sepcial Economic Zone)’은 Kattupalli 항만의 인수협정을 체결했음
 - APSEZ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APSEZ의 자회사로 Adandi Kattupalli Port를 설립하여 Kattupalli 항만의 운영권을 인수한다고 밝혔음
 - 아단디그룹은 Kattupalli 항만을 건설한 인도 엔지니어링 업체인 Larsen&Toubro Ltd와 국제터미널 운영 및 관리권 인수에 대한 협정을 맺었지만 인수가격 등 재무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음
 - 인수과정이 모두 끝나면 아단디그룹은 현재 건설 중에 있는 Ennore 터미널을 포함하여 Tamil Nadu 남쪽에 위치한 두개의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한 운영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
 - APSEZ는 Ennore 항만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전략 항만으로 Kattupalli 항만을 평가하고 있으며, 이들 두 항만을 이용함으로써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체현상을 줄이고 Tamil Nadu와 인근 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- Kattupalli 항만은 Larsen&Toubro사가 Tamil Nadu 정부로부터 2008년부터 30년간 운영권을 받은 곳으로 첸나이 북부 16마일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
 - Larsen사는 Kattupalli 항만의 개발을 위해 지금까지 약 6억 1,600만 달러를 투자했음
 - Kattupalli 항만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현 컨테이너 터미널은 2,300 feet 길이의 부두와 46 feet의 수심, 6대의 크레인과 야적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120만 TEU의 처리능력을 구비함
 - Kattupalli 항만은 현재 선박 및 화물 유치에 집중하고 있으며, 지난달에는 대만 선사인 Wan Hai Lines가 격주 운항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기항 횟수 및 물동량이 증가하기도 했음
 - 하지만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저조한 성장세를 보였는데, JOC의 자료에 의하면, 첫 회계연도인 2014-15기간 동안 처리한 물동량은 29,000TEU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
 - Kattupalli 항만은 현재 전 세계적인 해운경기 침체와 더불어 인도 동부 해안의 Krishnapatnam, Karaikkal, Gangavaram와 같은 중소 항만들의 신규 건설로 인해 물동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

자료 : www.joc.com, 2015.11.10.

이홍원 연구원
051-797-4783, hongwon@kmi.re.kr



물류시장동향

Maersk사, 인도네시아 정부와 전략적 제휴 의향서 체결

- Maersk그룹은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국가교통 요충지이자 특별 경제발전 구역으로 인도네시아 동쪽에 위치한 비통지역의 해양 및 경제 발전을 위해 인도네시아 해사부 및 경제부처와 전략적 제휴 의향서(LOI)를 체결함
- 이러한 전략적 동맹의 핵심은 인도네시아의 개발지역들을 발전시켜 인도네시아를 유럽 및 미국과 같은 세계적인 수출시장과 연계시키는데 있음
 - 인도네시아 지부 Jacob Friis Sorensen 대표에 따르면 금번 LOI 체결 목적은 인도네시아 동부의 양식업 발전 및 직업기술 향상은 물론, 참치 및 코코넛과 같은 주요 물자의 원활한 운송망 구축을 통해 인도네시아 동부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
 - 나아가, 해당 지역의 경제·무역 발전이 성공적일 경우, 비통은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- 이에 앞서 Maersk 라인은 2014년 4월부터 비통항과 조흐르의 Tanjung Pelepas 항을 직항으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음

자료 : www.transportintelligence.com, 2015.10.28.

김민경 연구원
051-797-4777, mkkim421@kmi.re.kr

아스트라한-투르크메니스탄 항로 새로운 카페리 취항

- 새로이 취항한 아스트라한-투르크메니스탄 항로의 카페리는 두 국가간 카페리 이용객과 물동량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됨
 - 유라시아 서부권에 위치한 러시아 아스트라한과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을 목표로 한 카페리 항차 수 확대는 무역, 관광 등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망됨
- TACC 통신에 따르면, 이 카페리는 약 55대의 자동차와 200명의 여객을 싣고 운항할 수 있음
 - 카페리 시범 운항은 2015년 11월 16일에 시행되며, 아스트라한의 올랴(О л я) 항구에서 출발하여 카스피 해 유역을 가로질러 투르크메니스탄의 투르크멘바시(Т у р к м е н б а ш и) 항구에 도착함



- 시범 운항이 순조롭게 이어지면, 향후 2대의 카페리가 교차로 정기 운항할 예정임
- 양국 정부는 이러한 카페리 정기 취항 계획이 관련 기업유치 및 지역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함
 - 2014년 투르크메니스탄의 대외무역거래액은 2억1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아스트라한은 2013년 전년대비 43% 감소함

자료 : www.region.logistic.ru, 2015.11.13.

황윤희 연구원
051-797-4786, hwangyh@kmi.re.kr



북방물류시장 활성화를 위한 나진항 활용 방안 세미나 개최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에서는 아래와 같이 ‘북방물류시장 활성화를 위한 나진항 활용 방안 세미나’를 개최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- 일시 : 2015년 11월 24일(화), 14:00~18:00
- 장소 : (울산) 울산MBC컨벤션 아모레홀
- 주최 : 외교부
- 주관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
- 후원 : 울산항만공사, 울산시
- 세미나 프로그램
 - 북방물류 시장의 여건변화와 물류협력 방안
 - 중국 1대1로 및 AIB 출범에 따른 나진항 활용 국제물류 협력 프로젝트 발굴 제안
 - 북방시장 연계 해륙복합 물류체계 구축방안
 -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및 물류분야 실적 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남북 항만 및 한러 항만 복합물류 체계 구축방안 제시
- ※ 세부 프로그램 별첨, (발표자 및 토론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- 참가신청 : 2015년 11월 22일(일)까지
 - 신청방법 : 별첨 신청서를 이메일(hwangyh@kmi.re.kr)로 송부
- 참가문의 : 황윤희 연구원(051-797-4786, hwangyh@kmi.re.kr)
- ※ 본 세미나는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 참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, 관심 기업은 위의 이메일로 반드시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한중 FTA 연계 가치사슬 창출 방안 세미나 개최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에서는 아래와 같이 ‘한중 FTA 연계 가치사슬 창출방안 세미나’를 개최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- 일시 : 2015년 12월 1일(화), 09:40~12:00
 - 장소 : (서울)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
 - 주관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
 - 교육 프로그램
 - 한중 FTA 소개 및 전략적 활용 방안
 - 기존 FTA와 한중 FTA의 차이점 소개와 한중 FTA의 전략적 활용 방안 제시
 - 한중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소개
 - 한중 FTA 협정 내용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제시
 - 참가신청 : 2015년 11월 29일(일)까지
 - 신청방법 : 별첨 신청서를 이메일(bora62@kmi.re.kr)로 송부
 - 참가문의 : 손보라 연구원(051-797-4781, bora62@kmi.re.kr)
- ※ 본 세미나는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 참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, 관심 기업은 위의 이메일로 반드시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중소 · 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는 중소 · 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과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● 대상기업

- 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· 중견기업
-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% 이상인 기업 포함
 - ※ 중소 · 중견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적용 대상기업

● 대상사업

- 해외 물류시설(물류단지 · 센터 · 창고, 항만 · 복합물류 터미널 등)의 개발투자운영 사업
- 해외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 · 지사 · 사무소 설립 사업
- 상기 관련 M&A 및 기타 해외 물류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

● 지원내용

1.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

- 진출희망 지역 또는 추진하려는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현지 시장정보 및 진출 · 투자 여건 등 기초정보에 대해 단기 컨설팅 지원
- 현지 경제 · 무역 · 인프라 · 물동량 현황, 투자 관련 법 · 제도 등에 관해 기업이 문의 시, KMI가 보유하거나 입수 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문의사항 관련 정보 제공
- 컨설팅 결과물은 문서 형태로 제공

2.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

-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, 현지 공동조사(KMI 연구진과 물류기업 임직원이 동반)를 수반한 중기 컨설팅 지원
- 필요시 해외투자 유관기관 및 현지 유관기업 관계자와의 상담 주선
 - ※ 현지 공동조사에 수반되는 출장비 등은 KMI와 해당기업이 각자 부담
- 조사 종료 후 공동조사 보고서 제공



- 지원사업별 신청방법

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

- 신청기간 : 연중 상시 신청
- 신청방법 : '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'(별첨 1)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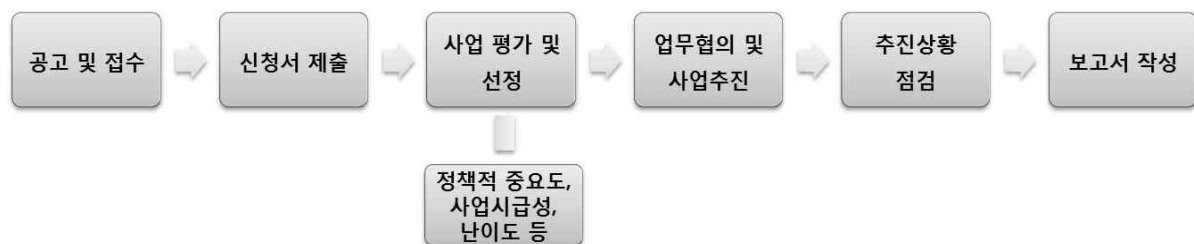
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

- 신청기간 : 연중 상시 신청
- 신청방법 : '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'(별첨 2)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
 - ※ 담당자 : 김은우 전문연구원(hisgrace@kmi.re.kr), 손보라 연구원(bora62@kmi.re.kr)

- 신청서 평가 및 기타

- 선정기준 :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·시급성·난이도, 정책적 중요도,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·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·지원
- 선정결과 발표 : 신청서 접수 후 2~3주 이내 개별 통지
- 유의사항 :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(김은우 051-797-4772 / 손보라 051-797-4781)로 문의
 - ※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

- 사업 추진절차





별첨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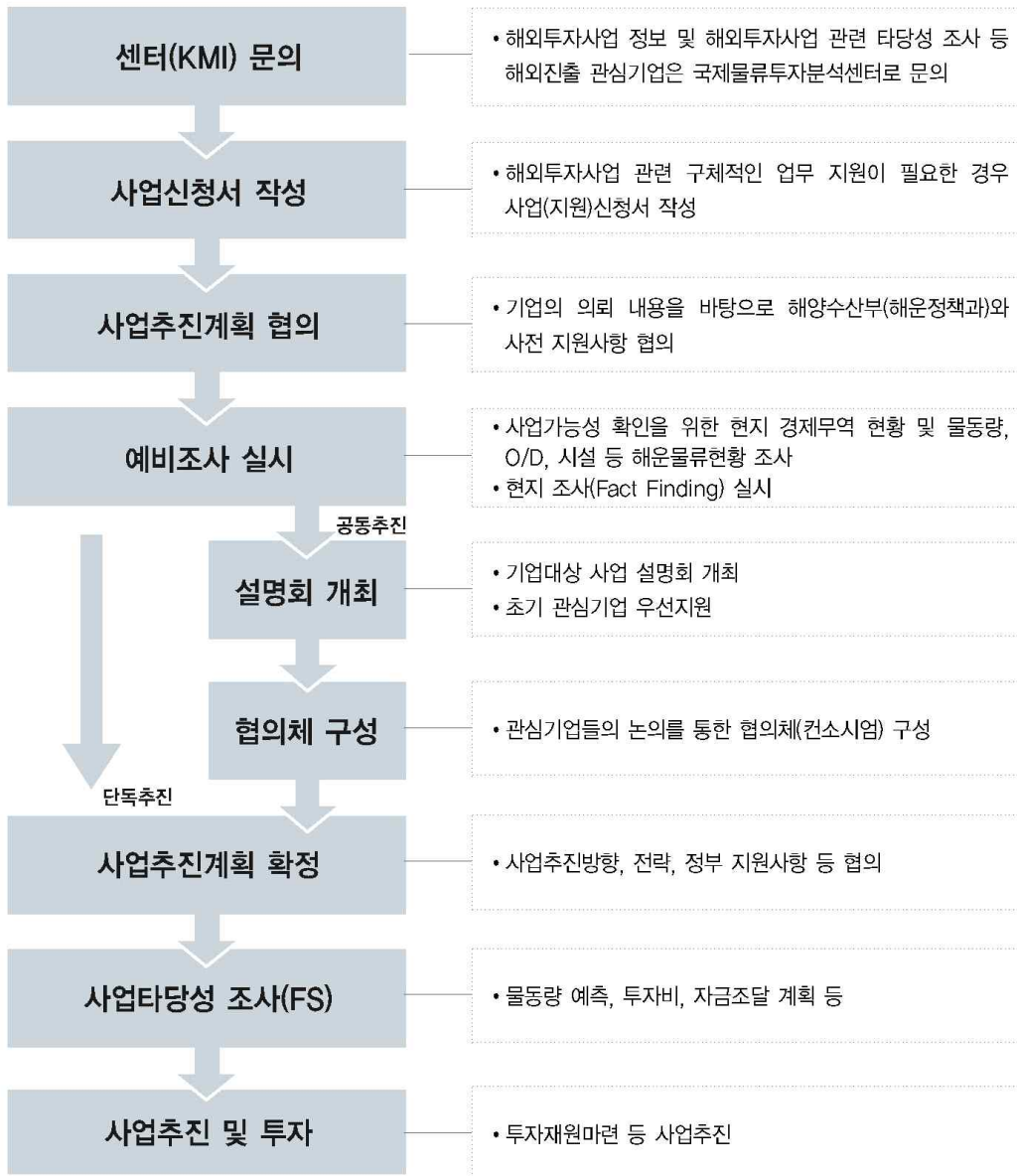
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

업체 개요	기업명		업 종	
	대표자		종업원수	
	소재지			
	자본금		매출액 (전년도)	
	사업자 등록번호		설립일자	
지원요청 내용	국가/지역			
	관련 사업			
	문의사항			
신청자	부서		Tel	
	직위		Fax	
	성명		E-mail	
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2015년 월 일 신청기업 : 대 표 자 : (인)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귀하				

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



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



* 기초타당성 조사(실비 부담), 정부간 협상,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